

한국전력공사

“새한전 창달” 다짐 연찬회 개최
간부직원의 적극 참여의식 고취

한국전력공사는 5월1일과 2일 이틀동안 서울연수원에서 李宗勳사장과 부사장을 비롯한 집행간부등 136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한전 창달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새한전 창달 다짐 연찬회」를 개최하였다.

李宗勳사장은 훈시를 통해 “사장으로 부임한 이후 지난 한 달동안 우리회사도 사회 못지않게 많은 변화가 있었으며 또 많은 개혁작업이 진행중에 있다”고 밝히고 이러한 개혁작업에 간부직원들이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李宗勳사장은 “우리회사는 우수한 인재가 많을 뿐만 아니라 지난 30여년동안 많은 발전을 이룩해 왔는데 비해 국민에게 비춰진 모습은 반드시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라고 지적하고 “종업원이 회사의 주인이 되며 깨끗하고 효율적인 회사로 탈바꿈시킴으로써 국민으로부터 더욱 사랑받는 회사로 키워나가자”고 호소했다.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계속된 이번 연찬회에서는 李載泰감사로부터 정부의 사정활동 방향과 이에대한 대책설명과 趙寅基부사장의 새한전 창달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다.

한편 연찬회 참석직원들은 모두 10개 분임조로 나뉘어 분야별로 직무담당 부격적자 처리방안, 대외 이미지 쇄신방안, 사업소 책임경영체제 확립방안등 10개 주제의 주어진 과제에 대해 그룹별 분임토의 시간을 가졌다.

한국전력기술(주)

삼천포화력 5·6호기
설계 기술용역 수주

한국전력기술(주)는 한전으로부터 삼천포화력 5·6호기 설계기술용역을 수주하였다.

지난 4월9일 계약 체결한 삼천포화력 5·6호기 용역의 계약금액은 230억 8천만원이며, 계약기간은 1993년 1월26일부터 1998년 5월31일까지로 경남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의 현 3·4호기 부지내에 저유황 유연탄을 사용하는 500MW급 2기를 건설하는데 필요한 설계기술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ISO-9001 인증취득전문용역 맡겨
전등공구생산 전문업체에

한국전력기술(주)는 국내 전등공구 전문생산업체인 계양전기(주)와 4월29일 ISO-9001 국제품질시스템 취득을 위한 품질보증자문용역 수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용역계약은 원자력 품질보증 선두주자 역할을 해 온 한국전력기술의 품질보증 능력을 원자력분야에서 최근 국내외 일반산업체를 대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국제품질시스템인 ISO-9001계열에 확대 적용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또한 정부로부터 가지정된 ISO-9001 국내 전문교육 및 업체지도 기관인 사단법인 한국품질관리기사회와 인증 희망업체 품질진단 및 지도, 교육등 다방면의 상호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교환함으로써 관련정보 및 기술습득은 물론 ISO-9001 품질자문용역에 대한 사업개발에 크게 기여하리라 예상된다.

한국가스공사

IGT와 공동의 가스기술 교육
가스공급에 선진화의 바탕 마련

한국가스공사는 천연가스의 전국 보급확대로 인한 가스사용이 급격히 증가, 가스공급체계의 선진화와 인력의 자질향상이 요구됨에 따라 미국 IGT와 공동으로 가스기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지난 5월31일부터 6월5일까지 6일간 연구개발원에서 실시된 이번 기술교육은 가스공사 직원을 비롯 일반도시가스사 배관시공 및 설계담당자, 가스배관 관련 시공회사 및 엔지니어링회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 교육에는 미국 AMC(American Metering Company) Kasumi Sakamoto 박사, 우리나라의 세종AMC의 유진곤상무, IGT 전문가사 요원등이 주요강사로 초대되었다.

한편 이번 가스공사와 美 IGT의 공동가스기술교육에 따라 향후 가스의 안정적 보급과 공급의 경제성을 향상, 가스가격의 안정을 기하고 가스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는 등 그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관련 가스공사 연구개발원 교육훈련실의 환관계자는 「이 교육과정을 통해 선진기술도입과 기술자료의 국내보급으로 가스공급의 선진화를 이룩하는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전기공(주)

徐錫天시장 울산, 고리사업소 순방 인재양성과 기술축적등 강조

한전기공(주) 徐錫天사장은 4월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동안 울산과 고리사업소를 순방했다.

지난 4월15일 한전기공(주) 사장 취임후 처음 사업소 순방길에 나선 徐錫天사장은 울산사업소에 들려 간단한 업무현황보고를 받은후 작업복과 안전화를 착용, 한창 진행중인 1·6호기 계획예방 정비공사 현장을 살펴보고 땀흘리며 수고하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어서 4월21일 고리2사업소를 방문, 간부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진 徐사장은 “한전기공은 전력사업의 여건으로 보아 앞으로 발전가능성이 클 것으로 본다”는 견해를 밝히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인재양성과 기술축적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에는 고리1사업소를 방문, 1호기 계획예방정비를 앞두고 공사의 무사시공을 기원하는 안전지원제를 직원들과 함께 지낸후 고리1사업소의 무재해 목표4배 달성기념 및 5배 달성결의대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徐사장은 직원들에게 안전확보를 최우선과제로 하고 모든 안전관리활동은 인간존중의 바탕위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임을 당부했다.

포항종합제철(주)

丁회장, 국제철강협회 이사회참석 포항종합제철 세계2위 확인

국제철강협회(IISI)의 93년도 특별이사회가 4월18일부터 이틀동안 체코슬로바키아의 수도 프라하에서 열렸다.

이번 IISI 특별이사회에는 회장인 일본 신일철의 사이도 히로시 사장을 비롯하여 IISI회원국 철강업계 지도자 88명이 참석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포철의 丁明植회장이 참석하였다.

이번 특별이사회에는 전세계적으로 장기간 계속되고 있는 철강불황 속에서 정보교환의 필요성을 어느때보다 강하게 인식한듯 24개국 철강업계 지도자들이 내거 참석하였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최근 세계 철강업계 관심사중의 하나인 이산화탄소세 부과 대응방향을 비롯하여 알루미늄등 경쟁소

재의 등장에 대한 철강업계의 대처방안과 철강의 이미지 제고방안, 식음료 용기용 철강소재 확대사용 방안등을 주요의제로 다루었다.

이 이사회에서 포철의 丁明植회장은 우리나라 경제 및 철강업의 단기전망을 발표했다.

이와함께 이번 특별이사회는 지난해 포철의 조강생산량이 2천만톤을 넘어섬에 따라 앞으로 IISI총회나 이사회등에서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이 2표에서 3표로 늘어났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이에따라 포철이 세계 철강업계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영향력이 한층 더 강화되었다.

의결권 1표 추가는 조강생산량이 1천만톤 늘때마다 1표의 의결권을 추가로 부여하는 IISI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IISI회원국 48개국 가운데서 3표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회사는 포철외에 일본의 신일철(3표)이 하나 더 있을 뿐이다.

한편 프랑스의 유지노사실로시는 조강총생산량에서 포철을 앞섰지만 독일에서 생산하고 있는 생산량(420만톤)만큼 별도의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어 유지노사실로사 자체로는 2표만 행사하고 있다.

호남정유(주)

5KW급 연료電池 스택 개발 레이저·업무용등 상품화 추진

호남정유는 4월20일 서울대, 포항공대와 공동으로 국내 최대규모인 5KW급 연료전지스택(Stack)을 개발, 연료전지의 상업화기반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스택은 수소와 산소를 결합시켜 전기를 만들어내는 시스템으로 발전효율이 화력, 원자력에 비해 높으면서도 황·질소산화물등 대기오염물질을 크게 줄일수 있는 연료전지의 핵심 장치이다.

호남정유 기술연구소는 지난 3년동안 30억원을 들여 전해질이 인산으로된 5KW급 인산형연료전지스택을 개발했다.

이 용량은 지난해 하반기 에너지기술연구소가 국내 첫개발한 스택(1KW급)의 5배 규모이다.

아울러 연료전지용 전극촉매제조, 전극용량증대, 스택설계·제조, 5백W급 스택제작 및 성능평가를 거쳐 5KW급 스택을 개발하는 개가를 올렸다.

호남정유는 이번 개발과정에서 축적한 기술을 바탕으로 올해안에 40KW급스택 시제품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자체개발한 스택을 활용, 레이저, 업무용, 공장용 등으로 연료전지를 상품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제3회 원자력안전성 심포지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4월 16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원자력 관련기관 인사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회 원자력안전성 심포지움을 개최하였다.

이번 심포지움에서는 최근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중심으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원자력 안전문화를 주제로 IAEA 전문가 3명의 특별강연을 비롯하여 과학기술처, 한국전력공사, 학계 및 산업계로부터 각 기관 고유의 역할에 따르는 건전한 안전문화에 대한 주제발표와 국내 원자력 안전문화 정착방안에 관한 각계 전문가들의 패널토론이 있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는 원자력 안전성 심포지움은 원자력 관계전문가 및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에서 수행된 원자력 안전성 향상을 위한 최근의 활동을 소개, 평가하고 국내 원자력 안전규제 방향을 공개함으로써 원자력 안전규제 활동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얻기 위하여 수행된다.



〈원자력안전기술원은 원자력안전성 심포지움을 개최했다.〉

원자력 안전문화평가 세미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4월 13일에서 14일 양일간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후원하에 원자력 안전문화 평가세미나를 개최하였다.

IAEA는 이 세미나를 위하여 원자력안전국장인 모리스 로젠 박사(Dr. M. Rosen)와 원자력안전문화 개념의 창안자인 밀로라드 듀지치 박사(Dr. Milorad Dusic) 등 3인의 전문가를 파견하여 국제원자력기구가 개발한 조직내의 안전문화 수준

의 자체 평가지침을 중심으로 한 강연과 사례별 평가를 수행하였다.

이 세미나에는 과학기술처, 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전력공사 및 원자력연구소 등 원자력안전에 관계하는 국내 모든 기관으로부터 40여명의 전문가가 참석하여 현재 IAEA를 중심으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원자력 안전문화의 기본개념, 바람직한 안전문화의 형태 및 안전문화 수준의 자체 평가지침 등에 대한 강연과 토론 등으로 진행되었다.

원자력 안전문화는 원자력사고의 발생이나 그 예방이 결국 인간의 노력이나 태도 그리고 인간이 속한 조직내의 환경에 의해 좌우된다는 관점에서 IAEA를 중심으로 최근에 도입된 개념으로서, 이 안전문화의 정착이 원자력의 위험도를 감소시킬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

연구개발 성공사례집 발간배포
중소기업 기술애로사항 지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는 선진국의 기술패권주의 강화로 기술의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실정에서 에너지문제가 산업발전의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지적되어 정책적, 기술적, 경제적인 면에서 심각한 실정으로 대두됨에 따라 중소기업들의 기술 애로사항에 대한 창구역할을 위해 연구개발 성공사례집을 발간하였다.

한편 연구소는 기술낙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에 대해 연구소가 보유하고 있는 고급기술과 인력을 활용하여 기술지도와 인력훈련 등 지원사업을 보다 강화하기로 하였다.

그동안 연구개발에 성공한 PSA산소농축장치 등 에너지절약과 신재생에너지, 환경에너지분야 106개 과제들의 개요, 개발된 기술의 내용, 기대효과, 연구자 연락처 등을 관련사진, 도표와 함께 구성하여 연구개발 성공사례집으로 엮어냄으로써 해당분야에 대해 중소기업들이 관심을 갖도록 하였다.

앞으로 이 성공사례집의 발간을 계기로 연구소는 현실적 경제난국 타결의 차원에서 특정기술의 산업화를 위해 원천적인 기반기술과 함께 민간기업이 이윤동기 면에서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공공복지기술과 대형핵심기술개발에 주력하고 현실점에서 자체기술개발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 못한 관련중소기업에 대하여 R & D지원의 강화와 함께 에너지절약과 품질향상에 직접적인 기여를 함으로써 기업과 나아가 우리나라 경제를 희생시키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할 계획이다.

(주) 유 공

경유차량 매연제거 기술개발 성공 특수 팔라듐 촉매 이용

(주)유공은 특수처리한 팔라듐 촉매를 이용해 경유차량에서 발생하는 공해물질인 매연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경유차량 매연제거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했다.

이 기술은 경유차량의 배기가스를 특수처리한 팔라듐 촉매로 코팅된 필터에 통과시켜 매연을 걸러내고, 걸러진 매연은 배기가스의 자체 열로 완전 연소시켜 필터를 계속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기존에 기술선진국에서 개발한 매연제거 기술보다 훨씬 더 우수해 이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유공은 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울산연구소 정현중 소장을 팀장으로 한 특별연구진을 편성하여 '91년 3월부터 '93년 4월까지 연구를 진행해 왔다.

매연 연소장치에 촉매로 많이 사용되는 기존의 백금촉매는 매연 연소효과는 좋으나 삼산화황 생성 등 2차 공해를 유발하는 단점이 있으며, 최근에 소개되고 있는 팔라듐 촉매는 삼산화황 생성이 낮은 대신 입자상 물질의 연소활성도 낮아 문제점이 있었다.

이번에 개발한 기술은 백금촉매보다 우수한 매연 제거성을 가지면서도 삼산화황 발생을 억제하는 특수 팔라듐 촉매를 이용한 것인데 이 특수 팔라듐 촉매도 자체개발한 것이다.

이 기술을 이용해 만든 매연 제거장치는 크기도 경유차량의 머플러(소음기)와 비슷하고 구조도 간단하여 머플러 대신 설치하여 매연과 소음을 동시에 제거할 수 있으며, 대량생산시 약 150만원 정도에 공급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치는 외국의 시제품보다 우수한 성능을 갖추고 저렴한 비용으로 대량생산이 가능한 데다 크기가 작고 구조가 간단하여 기존의 차량에도 어려움없이 설치할 수 있다.

또한, 기술개발을 완료한 후 이 장치를 자체 보유 버스에 설치하여 빈차, 모래 3톤을 실은 차등 각종 조건으로 시내, 국도, 고속도로에서 1만km 이상 실제 주행실험을 실시했다.

한편, 유공은 더욱 높은 효율과 경제성을 지닌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촉매와 필터의 성능을 높이기 위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는데, 94년부터는 NO_x 및 SO_x까지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는 차세대 경유차량 공해제거 기술개발과 고정시설물 대기공해방지 기술개발에도 착수하여 환경보호에 힘을 예정이다.

경인에너지(주)

北아프리카 알제리서 油田발견 매장량 3천만~1억배럴 추정

경인에너지와 삼성물산은 4월 27일 北아프리카의 알제리에서 매장량이 최소 3천만배럴에서 최대 1억배럴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육상유전을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발견된 油田은 알제리 남동부 리비아와의 접경지역에 있는 「이사우에네」 광구로 양사는 지난 12월부터 올 4월까지 모두 2개의 시추정을 탐사한 결과 티페르니油井과 팀메스나퀸油井 등 2곳 모두에서 상당량의 원유를 발견했다는 것이다.

이 광구는 55%의 지분을 갖고 있는 스페인 국영석유회사 렉솔사가 운영권을 갖고 있으며, 삼성물산은 20%, 경인에너지는 10%, 네덜란드 오렌지나트소는 15%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양사는 평가정 시추와 개발타당성 조사를 올 하반기중에 모두 끝내고 이를 토대로 오는 94년말부터 원유를 본격 생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알제리유전 탐사사업의 기간은 지난 91년 11월부터 오는 2008년까지로 되어 있으며, 5년씩 2번 연장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생산이 시작되면 생산량 가운데 우리나라측 사업 참여 지분인 30%만큼을 국내로 들여올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쌍용정유(주)

「주유소 판매가이드북」 배포

쌍용정유는 「주유소 판매 가이드북」을 제작하여 지난 3월 29일 전국 각 주유소에 배포했다.

주유소 영업 가이드북으로는 2번째로 발간된 이책은 주유소에서 근무하는 판매원을 대상으로 주유소의 서비스와 기초적인 상품지식, 주유소 근무수칙을 정리한 초급판매사원용 교재로 마련된 것이다.

주요내용은 쌍용주유소의 휘발유·등유·경유·윤활유·TBA 등의 판매요령과 차종별 주유구의 위치, 판매원의 근무수칙, 일일점검 리스트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주유소 판매를 쉽고 자세하게 알 수 있도록 편집되어 있다.

대한광업진흥공사

趙사장 알바니아대사 만나 광물자원개발 양국공동 관심사 논의

대한광업진흥공사 趙鍾益사장은 4월 28일 주한 알바니아 Tahir Elezi대사의 방문을 받고 양국간의 광물자원개발에 관한 공동관심사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趙鍾益사장은 「Elezi대사의 방문을 환영한다고 말하고 양국의 경제분야, 특히 알바니아의 광물탐사 및 개발분야에 확고한 협력기반 구축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광업진흥공사의 업무현황을 간략히 소개하고 Elezi대사의 방문과 관련 양국의 광물자원 개발 발전을 위해 많은 협력을 부탁하였다.

한편 Tahir Elezi 알바니아대사는 인사말을 통해 「많은 분들이 우호적으로 환영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하면서 「한국의 알바니아에 대한 투자가 요망되고 공업분야와 지질광산분야등 모든 분야에 대한 기술지원이 요구된다」고 했다.

광물자원 협력부문에 있어서 알바니아로서는 현재 자원분야에 투자할 능력이 미미하지만 본국의 전문가에게 소개하여 양국간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였다.

호유에너지(주)

“고객의 달” 선포식 임·직원들 적극적인 참여 활동

호유에너지(주)는 4월 1일 본사 3층 대회의실에서 그룹차원에서 실시되고 있는 고객의 달 캠페인 행사계획에 따라 고객의 달 선포식을 거행하였다.

이날 고객의 달 선포식에는 국민의례, 캠페인 취지 및 경과보고, 선포식사, 행동규범 제창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구자경 럭키그룹 회장은 권오륜 호유에너지 부사장이 대독한 선포식사를 통해 고객의 불만에 대응하는 소극적 수준을 넘어서 고객을 만족시키고 감동시키자는 것이 이 행사의 참뜻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럭키금성 브랜드야말로 모든 고객에게 절대적인 신뢰요, 무조건의 믿음으로 확고하게 인식될 수 있도록 전임·직원이 동참해서 정성이 가득 담긴 활동을 활발히 펼쳐 줄 것을 당부하였다.

현대중공업(주)

南美 플랜트시장 첫 진출

현대중공업(주)는 5월 21일 국내에서는 최초로 남미 플랜트시장에 진출하여 브라질 국영 석유회사로부터 중질유분해 설비용 열교환기 9기를 수주했다.

그동안 북미 주요업체가 독점 공급해 오던 남미 플랜트시장에 진출한 현대중공업은 오는 94년 5월 발주처에 인도할 예정으로 제작중이다.

이 중질유 분해설비용 특수열교환기는 정유공장의 감압증류공정에서 나오는 벵커C유 등 중질유분에 고순도의 수소(Hydrogen)를 주입시켜 400℃의 고온과 200기압의 초고압에서 반응시켜 대기오염의 주범인 유황성분, 질소성분 등이 완전히 제거된 경질유를 생산하는 시설로 고도의 안전성과 정교함 등 성능에 대한 신뢰성이 요구되는 부속기기로 알려져 있다.

현대중공업이 그동안 기술축적을 바탕으로 국내에서 최초로 이 분야의 국산화에 성공, 세계경제의 블록화가 가속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등 북미의 주요 독점업체를 제치고 남미시장에 진출한 것은 매우 의의가 큰 것이다.

한국원자력연구소

제30회 전력그룹 워크샵

제30회 전력그룹 워크샵이 5월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동안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개최되었다.

「에너지·환경과 원자력」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워크샵에는 상공부, 과기처 관계자를 비롯하여 한전, 한전기술, 한전기공, 한중등 전력그룹 회원사 및 학계 등 유관기관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에너지·환경과 원자력에 관한 4편의 주제발표와 2편의 특별강연 그리고 분임토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한국원자력연구소가 주관한 이번 워크샵에서 최영명박사는 지구환경문제와 원자력의 역할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지구환경문제는 어느 한 국가의 노력에 의해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세계의 공동된 노력이 있어야만 해결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지구온난화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전세계적인 에너지절약과 에너지효율 향상을 전제로 원자력을 포함한 비화석연료 에너지의 이해증진이 필요하며, 에너지수요를 충족시키고 지구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서는 당분간 원자력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석유개발사업 활성화 세미나

에너지경제연구원은 4월 23일 해외석유개발협회와 공동으로 석유개발사업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여 자원이 부족한 우리경제의 에너지부문을 조명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에너지경제연구원 李會晟원장은 「21세기를 대비한 해외석유개발 전략」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21세기의 유전개발은 종래의 에너지 안보강화를 위한 자주개발 수입차원에서 벗어나 정유사들의 상향성 수직결합조직을 강화함과 개발된 석유를 개발지역의 하류부문과 연계시키는 석유제품의 전략상품화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趙東成 서울대 교수는 「한국 해외석유개발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 전략」에서 석유개발사업에 대한 우리 정부의 역할은 재정지원과 아울러 첨단장치산업이나 해양구조물 건설업등 석유개발산업과 관련한 산업이 석유개발산업과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함을 주장했다.

韓竣皓 상공자원부 석유가스국장은 「우리나라 석유개발사업에 대한 지원정책」을 통해 우리나라의 해외유전개발사업은 초기의 탐사사업 참여위주에서 지금은 기개발유전 매입단계에까지 확대, 발전하여 왔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현재 광구 취득이전 단계의 조사사업에 대하여는 석유사업기금에 의한 일정률의 보조금을 교부하는 제도를 마련, 시행준비 중이며, 개발단계에 대한 금융지원제도로써 석유사업기금에 의한 채무보증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것임을 밝혔다.

에너지관리공단

「커플링」등의 동력절감 문제 세미나 고효율 설비보급 촉진 등 지도

에너지관리공단은 5월 26일 대구염색공업공단에서 에너지이용효율제고를 위한 가변속 유체커플링 및 복합커플링에 의한 동력절감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고효율 설비보급 촉진사업의 일환으로 에너지절약 우수기술에 대한 세미나와 현장방문으로 이루어진 이번 세미나에서는 가변속 유체커플링 및 복합커플링의 국내설치 절감효과가

기존설비 대비 약 18%로 나타났다.

이는 연간 14억원의 전력비가 절감되어 투자비 회수기간이 1.5년으로 투자경제성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세미나에는 독일의 유명모타의 속도제어장치 제조업체인 보이스터보(Voith Turbo)사의 전문가가 來韓 에너지절약형 신기술인 가변속 유체커플링 및 복합커플링의 원리 구조 및 특성, 경제성과 에너지절약효과, 기술도입시 고려사항, 운전조건 및 방법등이 발표되었다.

에너지절약 조기교육 워크샵

에너지관리공단은 6월 4일 자체 강당에서 에너지절약 조기교육 시범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에너지절약 조기교육의 방법과 과제」란 주제로 워크샵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샵에는 상공자원부,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등 관계기관 공무원과 50여명의 교사들이 참석하여 일선 교육현장에서의 에너지절약교육 장학지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에너지관리공단은 지난 '91년부터 초중고교의 교육과정을 분석, 교육용 에너지절약 부교재 6종을 개발했고, 금년에도 광주실업고등학교등 3개교를 시범학교로 지정해 에너지절약 현장적용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도시가스협회

회원사 관리자 실무연수 교육 도시가스 보급확대와 발전에 기여

한국도시가스협회는 5월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상반기 회원사 관리자 실무연수 교육을 실시했다.

각 회원사 안전관리담당자를 대상으로 충북 증원군 산록휴양소에서 실시된 이번 교육에서는 일반교양과 도시가스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교육 및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매년 상·하반기로 나누어 실시되는 관리자 실무연수교육은 협회가 회원사간 상호이해증진과 현안사항에 대한 공동대응책을 마련해 도시가스 보급확대와 사업발전에 기여토록 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이번 교육에서는 증원군 김예식부군수가 「향토문화사」, 건국대 문정구교수가 「한국경제의 이해」, 한국가스안전공사 강태연과장이 「도시가스시설 안전관리」, 대한도시가스 전수남이사가 「안전관리」, 상공자원부 권태운과장이 「도시가스사업과 관련한 정부시책」 등에 대해 각각 강연했다.